



임무영 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식물인식을 통해 바라본 영적 인식”

얼마전 <식물의 방식>이란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부제가 제 눈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기여하고 번영하는 삶에 관하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식물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우리네 사는 인생의 사이클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식물인식’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식물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거기에 반응하며 적응하는 식물의 절묘한 능력에 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에서 식물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식물인식의 결여’라고 합니다.

시카고의 푸르름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로수의 나무들도 서서히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자 준비하는 듯 합니다. 성질이 급한 개나리와 목련은 시카고 날씨를 사뭇 잊어버렸는지 애써 세상에 자태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불어오는 날씨와 비바람은 못내 이들로 하여금 후회의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식물도 기억력이 존재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춘화현상입니다. 소위 겨울의 추위는 식물이 봄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신호로 ‘기억’됩니다. 해바라기와 같이 태양을 추적하는 식물도 동이 뜨기 전에 해가 뜨는 쪽으로 향하는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가을에 단풍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도 계절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나무의 기억력으로 부터 나온 행동입니다. 겨울을 나야 하는 나무, 이 긴 시간을 울곧이 버텨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따라서 잎을 떨어뜨릴 시기를 기억하는 것은 나무 스스로 예전보다 여유 있게 물질대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강낭콩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새롭게 싹을 틔운 모종은 줄기와 잎의 생장을 조절합니다. 식물은 잎이 적절한 빛을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줄기에 화학적으로 ‘멈춤’신호를 보내 더 이상의 신장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열악한 빛 조건으로 인해 잎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으면, 잎은 빛을 더 받기 위해 줄기에게 길게 자라라는 ‘계속’신호를 보냅니다. 이처럼 식물은 환경에 맞추어 자신을 조율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접하면서 돌연 나의 영적 인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삶의 흔적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지 ‘기억’ (저는 ‘습관’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이 나를 만들어 내듯,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해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예수님! 주어진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를 기억하셨던 예수님!

오늘 나는 어떤 습관, 어떤 기억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식물들의 지혜를 통해 오늘 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 인식 시스템이 잘 가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식물이 기억과 인식에 둔감하면 환경에 탈선하여 생을 마감할수 밖에 없듯이, 우리 또한 영적 인식의 날카로움이 무너지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브릿지교회



세상을
그리스도
께로
연결하는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Mike Brick, Tara Der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el: 260-602-9061

www.chicagobridgechurch.org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어머니 주일>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배정은 집사

봉헌특송.....브릿지 남성콰이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사도행전 2장 1-4절, 36-40절 (신약, P.188)
(Acts 2: 1-4, 36-40)

설교.....임무영 목사
<“채움” 설교 시리즈 2>
“성령충만, 일상이 되다”
(Full of the Holy Spirit continuous in a daily life)

성찬.....다같이
(분찬위원: 백송학, 박철수, 송재우, 이창훈)

* 설교후 찬양.....다같이
“충만”

* 축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영: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공지사항
 - a. 5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b. 5월달 생명의 삶 픽업 (문의: 전성민)
 - c.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오픈: www.chicagobridgechurch.org
 - d.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수목 바이들 드라마 (말씀목상훈련)
 - a. 기간: 5/25(수)-26(목), 6/1(수)-2(목) / 6/(8)수, 7:30pm
 - b. 주제: “끝나지 않는 여행” (사도행전 전체)
 - c. 대상: 브릿지 성도 및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 모두
 - d. 참여방법: Zoom (카톡공유: 초대장 배부)
 - e. 신청: 예배 후 sign up (로비)
 - f. 회비: \$30.00 (개근하신 분들께는 100% refund)
4. 예배및 훈련
 - a. 토요일새벽예배 : 5/14(토) 6am, 현장및 Zoom
 - b. 1부예배(봉사자 예배): 10:30am / 소예배실
 - c. 선교주일: 5/22(주일) 12pm
 - d. 졸업예배: 5/29(주일) 12pm
5. 모임 및 모집
 - a. 한마음 주최(사랑방 4)봄맞이 홀랜드 툴립여행 안내
-출발시: 5/10(화) 8am / 9078 W. Golf Rd, Nile IL (장충동 식당 앞)
-준비물: 복용중인 상비약, 편한 운동화 및 따뜻한 옷 (문의: 백송학, 김현영)
6.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이재태, 백송학 / 다음주: 김창걸
 - b. 다음 주기도: 이희철
 - c. 감사: 어린이 생생명 축제 및 Mother's Day 행사준비
 - d. 5월 안내임 헌금위원: 조희선, 위경미 (안내) / 위부통, 위경미 (헌금)
7. 등록
 - a. 차요셉 장로 / 차승희 권사(사랑방 4)
 - b. 차동학 형제(사랑방 2), 차예준(아들)
 - c. 이인수 장로(사랑방 4)
 - d. 최부남 권사 (사랑방 4)
 - e. 정재열 형제 / 전사미 자매(사랑방 2,3), 정재훈(아들), 정다빈(딸)
8. 기도제목
 - a.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 b.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c.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 d.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샤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9. 지난 주 출석: 어른(83), 다음세대(28)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소예배실	
주일예배 2부	12:00 pm	본 당	
말씀목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 등 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